

방화동가족휴가촌 체류형 관광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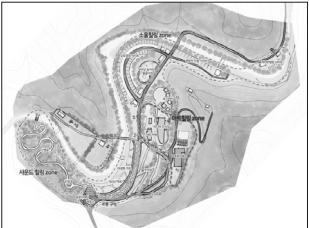
장수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25억원 확보

장수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서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25개 사업이 뽑혔다. 이 가운데 장수군은 지역의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사업 선정에는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장수군이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장수군이 추진하는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2025년부터 3년간 반암면 사암리 일원에 위치한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 관광지에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



방화동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안)

비 35억 원을 들여 휴가촌 내 노후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은 △가족휴양동, 아시아동 등 노후 숙박시설 보수(총 24객실) △목재문화체험장과 기존 매점 및 식당 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 및 아트카페 조성 △어린이놀이터 및 계곡물놀이장 설치 △산책로, 데크산책로 및 목교 조성 △야생화 식재를 통한 조경 정비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노후화된 방화동가족 휴가촌을 새단장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증

가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화동가족휴가촌은 장안산군립공원, 방화동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장수군의 핵심 관광벨트로 이번 정비를 통해 자연과 체험, 휴식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장수군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올해 하반기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설계와 조성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방화동가족휴가촌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무풍면 산타지 하우스(복합문화공간) 오픈 행사가 지난 8일 개최됐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 본격화

무주군, '산타지 하우스' 오픈 행사 개최

무주군 무풍면 산타지 하우스(복합문화공간) 오픈 행사가 지난 8일 개최됐다. 행사는 '산타지(SANTASY)' 마을 사업 위원장과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 청년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이대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원장과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다과와 함께 '산타지' 활동 소개, 청년마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 자유 네트워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산타지(SANTASY)' 마을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5년 청년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의 유·유·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타지 마을은 오는 2027년까지 무주형 청년 정착 모델 구축, 백패킹, 트레킹,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일거리 실험, 청년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SAN)'과 '판타지(FANTASY)'가 만나 탄생한 특별한 마을, 산타지(SANTASY)는 '청년이 자연 속에서 삶을 실험한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시작해 자연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을 공간은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역과 청년이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산타지 하우스), △무주의 자연과 로컬자원을 이해하고 실험하는 청년교육 플랫폼(산타지 스킵), 그리고 △무주의 맛을 담은 로컬푸드 실험실(산타지 베이식)을 거점화할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들의 체험, 실험,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열린 군수실' 소통의 장 자리매김

무주군 열린 군수실이 민·관을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10:00~), 민원봉사과에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 열린 군수실은 군수와 1대1 대면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된 민원은 무주군의 관련 부서장과 담당들이 함께 현지로 출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즉시 안내한다.

송순호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은 "열린 군수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향해 열려 있는 밀착형 상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며 "민원부터 군정 현안에 이르기까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군정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 불편 해소, 정책 의견 수렴, 지역 애로사항



청취까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무주군 열린 군수실은 8년간 총 132회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시설 개선, 복지정책, 생활 속 불편 사항 등 802건의 민원과 건의 사항이 접수·처리됐다. 무주군은 원·스톱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운영 중인 열린 군수실이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 기반이자 신뢰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개최

기관 경영실적·기관장 성과계약 평가결과 심의·의결

진안군은 지난 7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주영환 부군수)를 열고 2024년 실적에 대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 기반해, 출연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와 기관장의 성과 중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취지로 열렸다.

심의 내용인 출연기관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대상은 △진안홍삼연구소 △진안사랑장학재단 2개 기관이며, 진안군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평가를 받는 관계로 제외됐다.

진안홍삼연구소는 "나" 등급을 받았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은 "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에 체결한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 기관장인 진안군의료원과 진안홍삼연구소장 모

두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전문 외부기관이 수행하였으며,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 등을 따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출연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자립화를 위한 경영실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이번 평가는 기관의 경영성과와 기관장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진단한 결과로, 앞으로 책임경영과 운영 투명성을 높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광주롯데백화점서 '진안 흑삼·홍삼' 팝업 스토어 운영

진안군은 8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광주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진안 흑삼·홍삼 특산물 팝업 스토어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의 대표 특산물인 흑삼·홍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도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내 흑삼·홍삼 전문 업

체가 참가해 다양한 건강식품을 선보인다. 전통적인 홍삼 제품은 물론 3회 이상 증숙 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홍삼 제품, 여름철 이색 건강음료로 주목받고 있는 인삼리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워먹는 흑홍삼 치즈 등 진안만의 특색 있는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 현장 시음 및 소비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제품 개선 방향을 모색해 향후 수도권 및 온라인 유통 판로 확대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잔류농약 국제비교 숙련도 평가 2년 연속 우수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영국 식품환경 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잔류농약분석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2년 연속 전 항목 '민족' 판정을 획득하며 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시료 내 10개 농약 성분 모두 '민족' 등급을 받았다. 특히 헤스티아톡스(Hexythiazox) 등 2종 성분은 표준점수가 0으로 기준 값과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나머지 성분들도 표준점수 0.1~1.2 사이의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진안군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연간 약 1,000점의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과정 교육생, 장수 방문

장수군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수 중인 제8기 5급승진 리더과정 15분임 교육생들이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과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현장학습을 펼쳤다

고향 방문은 제8기 5급승진리더과정을 수료 중인 15분임 교육생 21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장수군을 찾아 교육 과정 중 '정책연구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분임장은 장수군청 최석원 산림과장이 맡았다.

교육생들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족욕 서비스를 통해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졌다.

또한 15분임은 '최근 대형산불의 피해 특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수군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현장 자료도 수집했다.

여기에 '장수치유의숲'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정책연구와 사회봉사,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